

경주·안산 보다 못한 광주 도시경쟁력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

2007~2008년 295위서 500위권 밖 추락
광역시 중 꼴찌...국내 일반 시보다도 뒤져

■2009~2010 도시경쟁력 순위

순위	도시명	지수
1	미국 뉴욕	1.000
2	영국 런던	0.957
3	일본 도쿄	0.919
9	서울	0.744
172	울산	0.480
183	수원	0.470
188	부산	0.464
207	인천	0.452
234	대전	0.434
267	안산	0.414
269	성남	0.412
290	대구	0.404
328	경주	0.385
339	전주	0.380

2015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도시이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500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7~2008년에는 295위에 올라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던 광주는 올해 경기도 수원시(183위), 안산시(267위), 성남시(269위), 경주시(328위), 전주시(339위) 등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전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全球城市競爭力報告, 2009-2010)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뉴욕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9위에 올랐다. 광주와 같은 광역시인 울산은 171위, 부산 188위, 인천 207위, 대전 234위, 대구 290위였으나 광주만 빠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종합경쟁력(경제규모·발전수준·경제집중도·경쟁력 성장 ▲환경경쟁력(기업 여건·해당지역 요소·내부 연계·세계 연계) ▲산업경쟁력 ▲미래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부터 미국 학

계와 공동으로 세계 130여개 국가의 주요 도시 500개를 대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비교해 발표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7~2008년 조사에서도 지역 내 총생산(GDP·176위), 특허취득(294위)에서 국내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취업률은 124위, 다국적 기업유치에선 343위였다.

그러나 도시경쟁력 분석에서 국내 일반 시보다도 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경쟁력 순위 500위권에 속한 도시들은 미국이 20개로 40%를 차지했으며, 유럽도 16개로 32%를 점유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城市與競爭力研究中心) 위사룬 연구원은 "광주의 인구나 경제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으나 사회 및 기업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며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작고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국무원 직속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이며, 1977년 설립돼 산하에 철학·경제·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삼복더위엔 폭포가 최고 피서” 초복인 19일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보기만해도 시원한 폭포 물줄기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최현배기자 choi@

190만명 방문 3000억 쓴다는데... 전남 교통·숙박난 여전 여름 휴가 특수 놓칠라

전남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와 관광 상품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교통과 숙박시설 등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자칫 관광객수가 허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0만명 전남서 3075억 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객류에 의뢰, 19일 내놓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올 하계 휴가여행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 있거나 다녀올 가능성이 큰 응답자는 46.1%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수가 4152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900만명 정도가 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휴가를 보낼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33.4%로 가장 많았고 경남(13.2%)·경북(11.5%)·전남(11.1%)순이었다.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90.2%인데다, 전남을 휴가지로 계획중인 응답자는 11.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190만명 정도가 전남을 찾

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올 하계 휴가여행 총 지출액을 추정해 결과, 2조7961억원의 관광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보면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관광비용으로 지출할 돈 규모가 3075억원에 이르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양한 전남 관광상품=전남도도 이번 주부터 8월 초까지 사흘을 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여름휴가 기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개최 붐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호기로 삼자는 의도에서다.

우선, 전국 최초로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및 신안군 증도 우전 해변을 개장해 흥보 효과를 선점하는 한편, 전남도내 65개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기업 하계휴양소 및 대학생 휴양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요트 및 카누체험, 갯벌스프링클러 레프팅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영기자 dok2000@

옛 도청별관 부분 보존 될 듯

설계변경안 내일 발표...전체 54m 중 24m 철거 방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이 '부분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전제로 한 설계변경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시의회를 방문, 의장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옛 도청 별관은 전체 54m 가운데 의회동으로부터 24m는 철거하고 본관으로부터 30m는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관이 부분보존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강 시장은 안성례 광주 5월 18일 대표, 정수만 5·18 유족회장 등 5월 단체 대표자와 만나 협조를 당부

하는 등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이날 오후 문광부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담건설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별관 보존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계변경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추진단이 '부분 보존' 방침을 정한 데는 지난해 옛 도청별관 보존 논란 속에 박광태 전 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위원회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한 보존'에 합의한데다, '오월의 문'이나 원형보존 등은 노후화된 건물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별관이 부분 보존으로 가닥을 잡게 됨에 따라 2년 넘게 끌어온 옛 도청 별관 보존 논란을 매듭짓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5-18 관련단체와 시민대책위 등은 구체적인 설계변경안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옛 도청별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며,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내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보존방식과 관련 어떠한 것도 공개할 수 없으며, 21일 설계변경안을 내놓겠다"며 "유구승씨의 설계변경안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될 경우 2014년 완공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움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가문 '네로네'(왼쪽) '마르페'

전통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 조화

세계 최고 유리 공방 스킨아본(Schiavon) 가문의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
'네로네'는 유럽 유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기법을 응용해 만들었다. 1000여 가지가 넘는 색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스킨아본 작품의 특성이 잘 묻어나 있다.
화상의 뜨거운 열기를 표현한 '마르페'는 작품의 곡선과 화려한 선이 빛을 수작이다.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본지는 1952년 창간 이래 58년간 지역·국내·국제 뉴스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디지털 뉴미디어를 접목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www.kwangju.com

연합뉴스